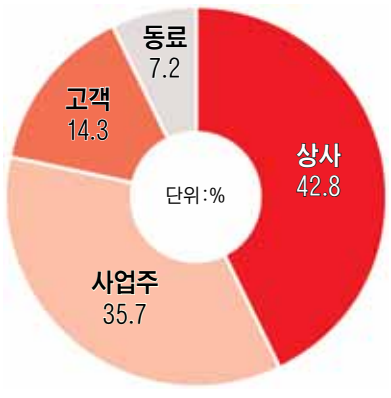


# “너만 보면 설레” 여전한 직장내 성희롱

##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분포



(자료:광주여성노동자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소매업 회사에 입사한 여성 A(20)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40대 대리 때문에 괴로웠다. 유부남인 대리는 다른 동료와 함께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귀엽다”, “너를 보면 설레다”는 말을 서슴치않게 하며 수시로 눈으로 A씨의 몸을 훑었다. 심지어 A씨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입사 9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또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여성 B(28)씨는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장이 “악수하자”, “손 한 번 잡아보자”고 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응했다. 그 뒤로 사장은 수시로 악수를 하자며 스킨십을 유도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B씨의 엉덩이를 스킨트 만졌다. B씨는 수치스러웠지만 불이익이 있을까봐 항의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여직원인 C(24)씨는 회식자리가 두렵다. 회사 동료가 “술 한 잔 따르라”고 해 따랐더니 “여자가 따라주니 역시 술맛이 좋다”고 으스스했다. 그 후 회식 때마다 술을 따르라고 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하다.

8일 광주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



“직장맘 근무시간 개선”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광주여성노동자회들이 여성의 근무시간 개선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광주여성노동자회 ‘여성의 날’ 맞이 고용평등 조사 사회초년생 성희롱 피해 빈번...남녀 차별 상담 최다

해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59건이었다. 이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상담은 5.4%인 14건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입사 1년 미만의 사회초년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여성노동자회는 “피해를 입은 사회초년생들은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피해 상담자 중 42.8%(6건)는 직장 상사에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업주 35.7%(5건), 고객 14.3%(2건), 동료 7.2%(1건) 순이었다. 성희롱 유형은 언어 폭력과 눈으로 몸을 훑는 시각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엉덩이를 만지거나 옆구리를 찌르는 등 육체적 희롱도 일어났다. 심지어 남자 사장이 남자 직원을 만지는 등 동성간 성희롱과 스토킹도 상담됐다. 성희롱을 포함해 남녀 차별과 관련한 상담은 전체 259건 중 76건(29.3%)을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육아휴직이 49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14건), 퇴직·정년·해고(6건), 교육·부서배치·승진(2건), 임금 등 차별(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생리휴가·시간외근로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은 43건, 임금체불 57건, 부당해고 29건 등이 접수됐다. 김용미 광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간사는 “현재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장도 많다”며 “직장 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위한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

# 거문도 5개 초교 통폐합...여수 숙원 풀었다

## 전남교육청 재정 심의...함평골프고 연습장 설치 등 추진키로

여수지역 숙원사업이던 거문도 내 2개 초교와 3개 분교가 2019년까지 가칭 거문초교로 통폐합된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급식실·운동장을 함께 쓰는 매성중·고 신설도 추진된다. 교육부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함평골프고 인근 ‘교육용 골프실습장’도 다시 진행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8일 오후 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10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

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혁신도시 내 ‘가칭’ 도담·공원유치원 신설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내 ‘가칭’ 행복초·중학교 신설 ▲혁신도시 내 매성중·고등학교 신설 ▲여수 거문도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함평교육지원청사 이설 ▲에코에듀체센터 신축 ▲함평골프고 인근 교육용 골프실습장(18홀) 설치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교육청 내

자체 투자심사 위원회로, 해당 위원회의 사업 적정성 여부를 비롯,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올릴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등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특히 여수 거문도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사업의 경우 거문도 내 2개초교(거문초·초도초)와 3개 분교(거문초 동도·덕촌·서도분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해 운영하는 게 골자다. 전남교육청은 현 거문초 서도분교를 6학급(45명) 규모의 가칭 ‘거문초교’로 오는 2019년 3월까지 재배치한다. 전남교육청은 또 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던 ‘매성중·고 신설’ 계획도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재추진키로 했다. 매성중·고는 중·고등학생들이 급식실·컴퓨터실·운동장 등을 함께 쓰면서 운영되는 학교로, 교육부 재검토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청은 향후 지역 내 문화스포츠시설과 연계, 복합시설화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지난해 3차례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던 함평 교육용골프실습장 설치 사업도 국비 확보 계획(100억→50억)을 줄이고 자체부담(100억→150억)을 늘려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4월 20일 전남도교육청을 비롯, 전국 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2    몰림 15:16  
해질 18:35    날짐 04:28

봄 오레나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0/12	보성	0/12	순천	1/13
목포	2/11	영광	-1/11	나주	-3/12
완도	2/13	진도	4/10	구례	-2/12
강진	-1/13	남원	-3/12	해남	-1/12
장성	-2/12	축산도	4/13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서~북서 2.0~3.0	서~북서 1.5~2.5
남부서해 앞바다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남부서해 앞바다(동)	서~북서 2.0~3.0	서~북서 1.5~2.5
남부서해 앞바다(서)	서~북서 2.0~4.0	서~북서 1.5~2.5

◇생활지수

관심	자외선
식중독	보통
파부질환	낮음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40	12:04
	17:35	--:--
여수	간조	만조
	00:34	07:14
	13:27	19:31

◇주간 날씨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11	1/15	3/15	2/15	3/14	4/12	3/11

## 함평·무안·신안 동굴에 박쥐류 집단 서식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함평과 무안, 신안 지역 30개 동굴에서 ‘붉은박쥐’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84마리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붉은박쥐는 전국에 500마리 안팎이 서식할 정도로 희귀해 멸종위기 야생생물(1급) 및 천연기념물(452호)로 지정돼 있다. 일명 황금박쥐로 알려져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동굴 및 생태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1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려 박쥐류 서식 실태, 동굴의 물리적 구조(온·습도) 등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붉은박쥐 외에 관박쥐 598마리, 대륙쇠큰수염박쥐 3마리, 큰발윗수염박쥐 2마리, 검은박쥐 1마리 등 박쥐류 총 888마리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앞서 서식이 확인된 함평 붉은박쥐 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

역 101마리 외에 무안, 신안 지역 6개 동굴에서 붉은박쥐 183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함평 붉은박쥐 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정창진굴 등 3개 동굴 91마리, 무안, 신안 지역 3개 동굴 166마리 등 6개 동굴에서 전체 284마리 중 90%인 257마리가 집중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륙쇠큰수염박쥐는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다. /김형호기자 khh@

〈사진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 ‘알바’ 청소년 26% 최저임금도 못받아

아르바이트 청소년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고 초과근무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떼먹는 사업주도 적지 않았다. 8일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646명을

상대로 설문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25.8%였다. 시급 6030원에 딱 맞춰 받은 경우가 15.0%였고 33.0%는 6030원에서 7000원 사이 시급을 받고 있었다. /연합뉴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제조 및 유통권: 대한민국, 전화: 061-16-4507)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에도 대한보청기가 필요합니다

TV·전화·말소리가 잘 들립니다!!

# 대한보청기 1+1 무료!!

구매시 전 제품해당

특별이벤트

무료!!

배터리 5년간 무료!!  
A/S 특별 3년간 무료!!  
(보청기 구입 1+1 무료, 모두 적용)

맞춤렌탈 (표준 가입비 면제)    보조금 (최대 131만원)

\*청각장애등급 해당자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50% 특별대할인

순천·여수 본점 0611741-488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